

## News

### 오늘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연합뉴스

7월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를 적용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

### 하나銀 신규대출 4종 중단...우리銀 우대금리 0.5%P 축소

매일경제

7월 1일 DSR 40% 적용으로 하나는행은 이날부터 관리비 대출, 솔저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종의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  
우리은행은 6월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7월 12일에는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 저신용자 대출 더 위축된다...한은 경고

뉴시스

3년 여간 고신용자 대출이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 대출은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최고금리(연 24%→20%)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대출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

### 라임 부실펀드 분조위 7월 마무리

e대한경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신증권의 라임 부실펀드 관련 분조위를 이달 중순께 진행하기로 했다.  
라임 부실펀드 배상비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처럼 50%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부산은행은 라임 부실펀드 분조위 결과 없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 최저임금처럼 매년 차보험료 인상...소비자 부담만 커질듯

아시아경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정비요금을 최저임금처럼 매년 산정하자고 요구. 물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정비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올해 4월과 5월에 두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비요금 합의가 이뤄지지지는 못했다.

### 투자가 문화된 대한민국...국민 1인당 1주식계좌 시대

머니투데이

주식거래 계좌수는 대한민국 인구수에 육박한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약 4,840만개로 집계  
대표적 증시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28일 기준 67조6778억원을 기록하며 연초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6월에 비해선 21조원 가량 폭증

### "금리 올리기 전에 찍자"...상장사 유증·CB 러시

이데일리

올해 2분기 상장사 유상증자 공시 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 유증 규모 기준으로는 총 7,766.5억원으로 전년 동기 6,298억원 대비 23.3% 증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만큼 최근 그에 따른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ABL생명, 자회사 ABL금융서비스에 49억 추가 출자

뉴시스

ABL생명은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ABA금융서비스에 49억원의 추가 증자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ABA금융서비스의 자본금 규모는 189억원  
GA시장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안정적 조직 체계와 선도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BA금융서비스를 활성화를 목표

####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